

# 24시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

드라마 <웰컴투 삼달리> 속 기상청 예보관의 노동환경

글 편집실



조용필(지창욱)은 제주 기상청 예보관이다. 그에게는 소중히 지켜야 할 개천 '삼달리'와 40년 넘게 물질과 뱃일로 생업을 이어가는 가족 같은 사람들이 있다. 태풍 및 폭우 등 거센 날씨로부터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특하면 본청 의견 반론에, 사사건건 토를 달고 훈수를 두며 고집스럽게 날씨에 매달린다. 기상 회의 때마다 마이크를 사수하는 건 기본, 기상청장과의 설전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집요한 성격 덕에 '골통' 소리를 듣는 그는 사실 슈퍼컴퓨터에 버금가는 반

전 실력자다. 웅필이 비가 온다고 하면 비가 오고, 눈이 온다고 하면 눈이 온다. 삼달리 토박이로서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체득한 경험치 덕분이다. 흔히 일기예보를 잘 맞히는 예보관은 예보를 많이 틀려보고, 많이 낸 사람이라고들 말한다.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각자의 해석이 다르기에 임상 경험이 풍부한 예보관이 필요한 것이다.

보통의 일기예보는 전 세계 동시 기상관측 후 슈퍼컴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린다. 매일 오후 2시에는 예보 토의가 이어지는데, 오후 4시 날씨 해설과 오후 5시 단기예보 통보문에 담길 내용을 정하는 중요한 자리다. 토의가 끝난 뒤에는 예보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예보가 결정된다. 예보 정확도 모니터링을 하긴 하지만,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예보관들은 기상 예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보가 빗나갈 때면 '오보청'이라며 비난 여론이 쏟아지기도 한다. 또한 4일 연속 이틀은 낮, 이틀은 밤에 근무하는 업무강도 역시 예보관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불규칙한 생활리듬으로 몸에 이상 신호가 오는 것이다. 결국, 현재 기상청 내 예보 부서는 기피 부서가 되어가고 있다.

## 이상기후에 몸살 앓는 기상청 예보관

기후변화 여파로 전 세계가 극단적인 날씨를 보이는 중이다. 이전에는 없던 기상 상황이 발생하면서 예보와 다르게 흘러가는 일도 잦아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상 재해에 대비한 예보 역량을 향상해야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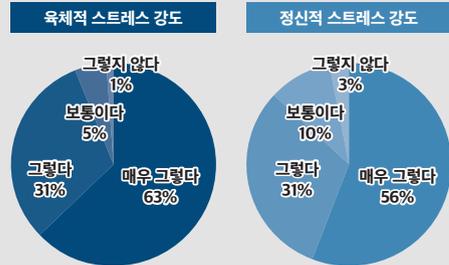
다. 이미 미국·영국·일본 등 ‘기상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은 예보관의 예보 기술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예보관 증원이 한 명도 없었다. 5개 조가 8시간씩 근무하는 영미권과 달리, 우리나라는 4개 조가 12시간씩 근무하며 높은 업무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예보 현업 업무의 육체적 스트레스(94%)와 정신적 스트레스(87%) 강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표 1, 2 참조> 또, 기상청 예보 현업 근무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 중 42%가 야근에 대한 체력적 부담을 이유로 꼽았다. 예보관들의 신체 건강에는 빨간불이 켜지고, 국민의 기상서비스 만족도는 하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표3 참조>

일기예보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야기하는 일이다. 그렇기에 기상청 직원들은 매일 날씨와의 전쟁을 치르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슈퍼컴퓨터가 통계를 내준다고 해도 결국 최종 예보는 사람이 내리기 때문이다. 예보를 발표할 때는 기상학적 분석뿐 아니라 예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편익이나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그만큼 기상 예측이 빗나갔을 때 비난의 화살도 감수해야 한다. 오보가 나간 날이면 예보관들은 죄책감에 밤잠을 설친다. 언제나 ‘놓친 게 있을까’ 하는 강박증에 시달리고, 점심시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채로 밥을 먹는 게 일상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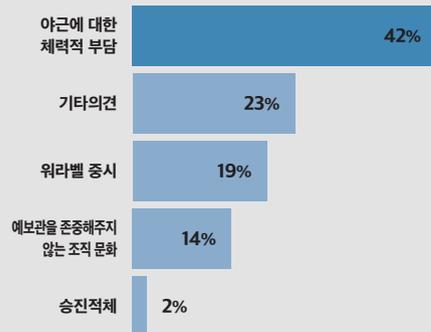
앞으로 이상기후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기상청 예보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상예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보관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교대근무주기를 늘리고, 근무인력을 확대해야 체계적인 예보관 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국민들도 기상청 직원들 역시 노동자 중 한 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고충을 이해함으로써 서로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표1> 예보 현업 업무의 스트레스 강도 비율



<출처 : 2019, 기상청 「예보관 보직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

<표2> 예보 현업 근무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이유



<출처 : 2019, 기상청 「예보관 보직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

<표3> 기상서비스 3대 지표 연도별 추이



<출처 : 2022, 기상청 「기상업무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